

# 세대별 투표참여율로 결정되는 한국 선거

## - 2000년대 주요 선거 세대별 투표율 통계 해석

---

2011.11.03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mailto:bkkim21kr@naver.com)

---

### 목 차

1. 청년세대의 투표 성향은 진보적, 문제는 투표 참여 여부
2. 20, 30대가 투표장에 조금만 더 가도 결과는 바뀐다.
3.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닮은 점.
4. 또 다른 닮은 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http://saesayon.org>

## 본문

## 1. 청년세대의 투표 성향은 진보적, 문제는 투표 참여 여부

2011년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사회도 청년들의 ‘참여’가 돋보였던 시기라고 할 만 하다. 세계적으로는 튀지니와 이집트의 청년 시위를 시작으로 스페인의 5월 시위, 영국과 칠레의 청년 시위, 그리고 월가점령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경제위기가 파생시킨 경제 사회적 어려움에 저항하는 젊은 청년들의 광범한 거리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던 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이기적이라는 오랜 낙인을 스스로 지우는 순간이었고 역사무대의 중심세력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참여는 ‘거리시위’보다는 ‘선거 공간’에서 표현되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30대와 20대가 박원순 무소속 시민후보를 경쟁후보에 비해 3배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4.27 분당 국회의원 선거와 10.26 서울시장선거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젊은 직장인들이 집중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선거 판도를 바꾸기도 했다. 거리 시위이든 투표 참여든 공통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발한 참여가 병행되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무기력하고 이기적이어서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기성세대가 덧씌운 오명 외에, 청년세대는 보수화되었다고 하는 기성세대의 또 하나의 고정관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연령별 득표율 조사에서 이미 잘못된 선입견임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30대와 20대가 압도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했음을 확인했지만, 사실 가장 보수적인 선거로 기억되는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상은 같았다. 당시 SBS출구조사 결과 20대의 이명박 후보 득표율 42.5%와 30대의 40.4%는 40대와 비교해도 평균 10%이상 낮았던 것이 그 사례다.

덧붙인다면, 각 세대마다 판단하는 진보의 성격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득표율로 세대별 진보 성향을 유추해보자. 20대는 기존 정치 틀과는 다른 지향의 진보(문국현 후보 지지율이 평균 지지율의 3배가 넘는 15.9%), 30대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진보(권영걸 후보 지지율이 평균 지지율 2배인 6.1%), 그리고 40대는 상대적으로 정동영 후보에 후한 득표율이 몰렸다는 점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현실적인 성향을 보였다. 요약해보면, 20, 30대는 이미 가장 보수적 선거인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타 세대보다 훨씬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온다는 것이며, 다만 세대가 젊어질수록 자신들의 진보적 성향을 기존 정치권 틀을 벗어난 곳에서 발견하려 한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안철수에게서 찾으려는 것 같다. 만약 안철수 교수가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 한다면 20대에게서 가장 큰 득표차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젊은 세대의 정치 성향이 보수화되었다는 가정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고, 일정하게 보수적 경향으로 경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세대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가 그러했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는 20대와 30대는 언제나 진보적 성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들이 선거에서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치 성향이 아니라,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즉 ‘투표 참여 정도’에 있다고 판단된다.

득표율 즉, ‘정치적 성향’ 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투표율’ 즉 ‘참여’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국민들이 정보 접근도가 용이하고 지적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기성 정당이나 진보 사회운동이 선불리 규정한 ‘진보-보수’ 프레임으로 청년세대의 판단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입각해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면 더욱 지지 성향보다 투표 참여 여부가 중요해진다.

세대별 득표율은 출구조사 외에 달리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할 방법이 없지만, 다행히 세대별 투표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집계를 한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10년 동안 주요 선거의 투표 참여 변화 추이를 짚어보면서 청년세대가 어떻게 참여의 정도를 높여왔는지를 간단한 통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보고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를 병행해보겠다. 다만 일반적인 통계와 달리 선거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의 성격이 다른 것을 섞어서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매번 전체 투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투표율 증감 추이를 정확히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점들을 감안하여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별로 묶어서 직전 선거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해보자.

## 2. 20, 30대가 투표장에 조금만 더 가도 결과는 바뀐다.

2000년대 치러진 선거 가운데 두 번의 지방선거, 세 번의 국회의원 선거,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뽑아서 서로 비교한 것이 아래 이어지는 4개의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10년 선거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① 2000년대 이후 모든 선거의 세대별 투표 추세는 체크(✓)형태의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대 별로 투표율 순위 자체는 크게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20대 후반 < 30대 전반 < 30대 후반 < 40대 < 50대라는 투표율 순서는 모두 동일했다.) 달랐던 것은 곡선의 기울기다. 투표율 순위가 아니라 투표율 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정도만 가지고도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② 시간대별로 변화 추세가 가장 큰 세대는 역시 20, 30대였다. 전체 투표율이 하락할 때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반대로 투표율이 상승할 때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대체로 20대 후반 ~ 30대 전반 세대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20대 전반 세대가 20대 후반~ 30대 전반 투표율을 앞서나가기 시작했고 추세는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 젊은 층에서부터 다시 투표율이 상승해나간다는 사실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 참여 여부 측면에서 20~30대가 어느 정도 균질한 구조로 맞춰져간다는 것도 발견된다.

③ 20, 30대와는 달리 4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 변동 폭이 작운데, 그 가운데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이 모든 선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표 참여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사실이다. 특히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50대의 투표 참여가 줄어들어서 60대 이상보다도 절대 투표율이 적어지는 역전현상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더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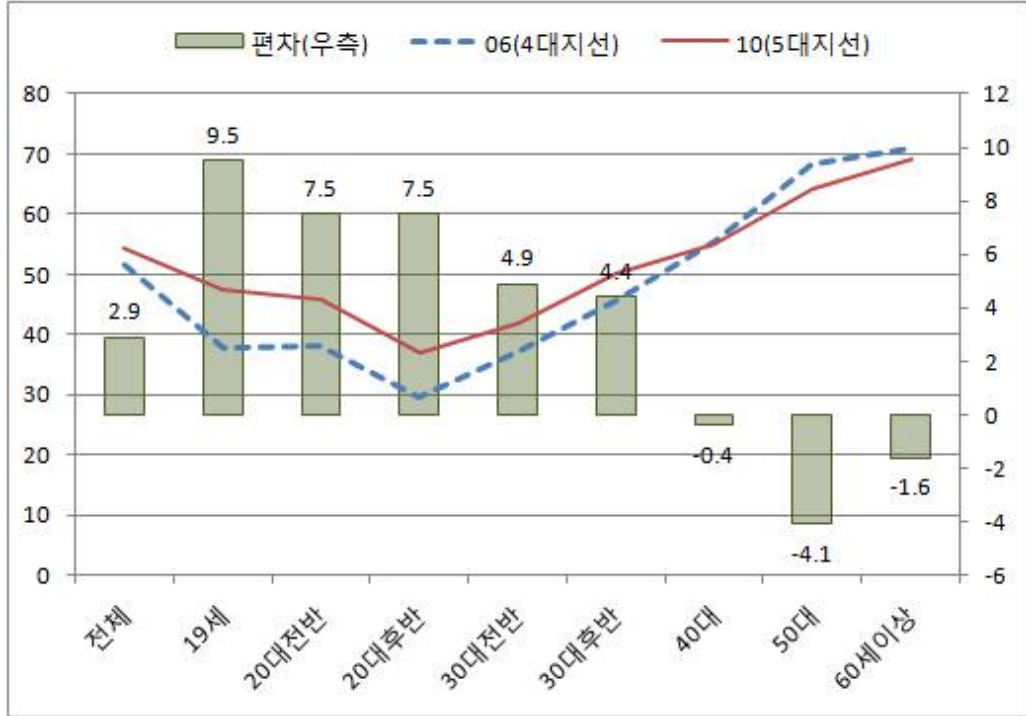
④ 종합해 보면, 2010년 지방선거는 20대와 30대의 투표 참여가 대거 늘어나면서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겨주었고(그림 1),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20대 후반~30대가 이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20% 이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음은 물론 한나라당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만들어 주었다.(그림 3). 그리고 2007년 대통령 선거 역시 20대 후반~30대가 10% 이상 투표장에 가지 않았던 것이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 3.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닳은 점.

재 보궐 선거까지를 감안하면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반환점으로 하여 최근 10.26 재 보궐선거까지 한나라당은 계속 패배를 거듭했다. 그 전형적 사례가 ‘복지’와 ‘천안함’을 이슈로 치러진 2010년 6.2 지방선거였다. 지난 지방선거는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30대 이하에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참여 정도가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전체 투표율이

3%가량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40대 이하는 오히려 투표율이 낮아졌고 50대가 가장 컸다. 예상컨대 올해의 4.27 분당 국회의원 선거나 10.26 서울 시장 선거도 지난해 6.2 지방 선거와 유사한 투표 참여 형태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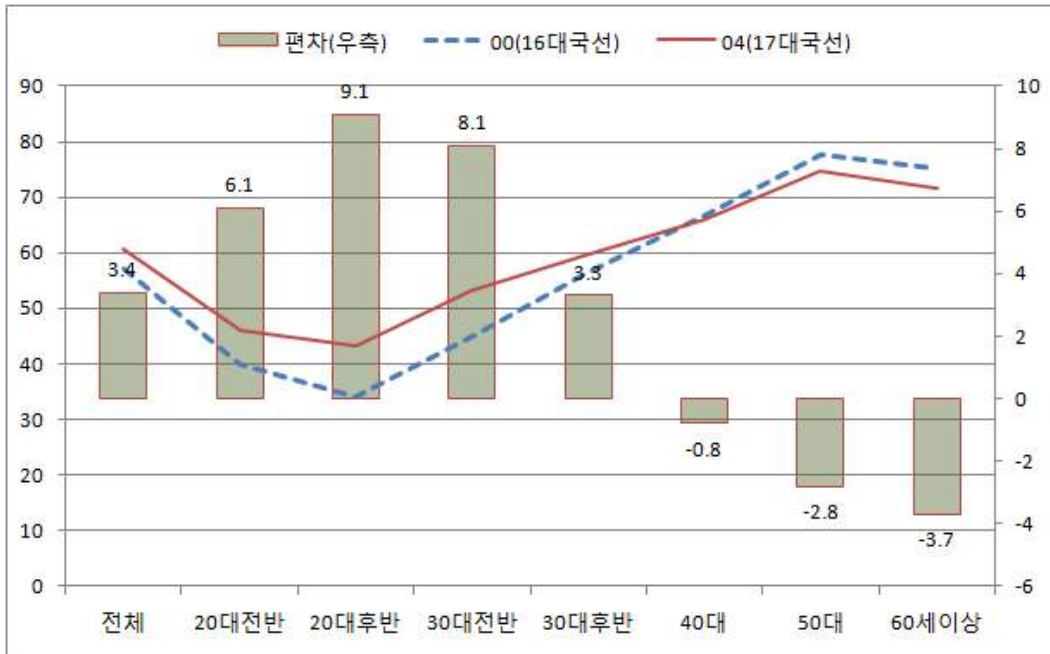
그림 1: 2006년 지방선거와 2010년 선거 연령별 투표율 비교



2012년 양대 선거에서 2010년 지방선거와 유사한 곡선을 그리면서 세대별 투표참여가 이뤄진다면 한나라당의 패배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다. 특히 지금 언론과 정치권에서 언급되하 있는 박근혜 - 안철수 대선 경쟁구도는 20대를 중심으로 투표율을 훨씬 끌어올리면서 박근혜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큰 반면, 기성 정치권 밖에 있었던 안철수 교수에게 지지율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최근 언론에서 빈번히 하고 있는 ‘지지율 여론조사’와 상당히 편차를 보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2006년 대비 2010년 지방선거와 거의 유사한 세대별 투표 참여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000년 대비 2004년 총선이였다.(그림 2)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배경에 업고 치러진 총선에서 신생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과반 수를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도 비례를 포함하여 10석을 얻는 이변을 연출한 선거였다. 당시 선거 역시 전체 투표율이 3.4% 올라간 가운데, 20~30대의 투표 참여는 크게 상승했고 반대로 40대 이하의 투표율은 크게 떨어졌던 것이다.

그림 2: 200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4년 선거 연령별 투표율 비교



다만 2004년 총선에 비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30대 전반보다 20대 전반 세대의 절대 투표율이 더 높게 역전되었고, 50대와 60대 사이의 절대 투표율도 역전되었다는 사실이다. 2004년과는 달리 19세 투표 참여가 가능해진 것을 감안하면 2010년 지방선거는 2004년 총선보다 훨씬 더 젊은 세대가 많은 비율로 투표장에 갔음을 알 수 있다. 투표장이 젊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 4. 또 다른 닭은 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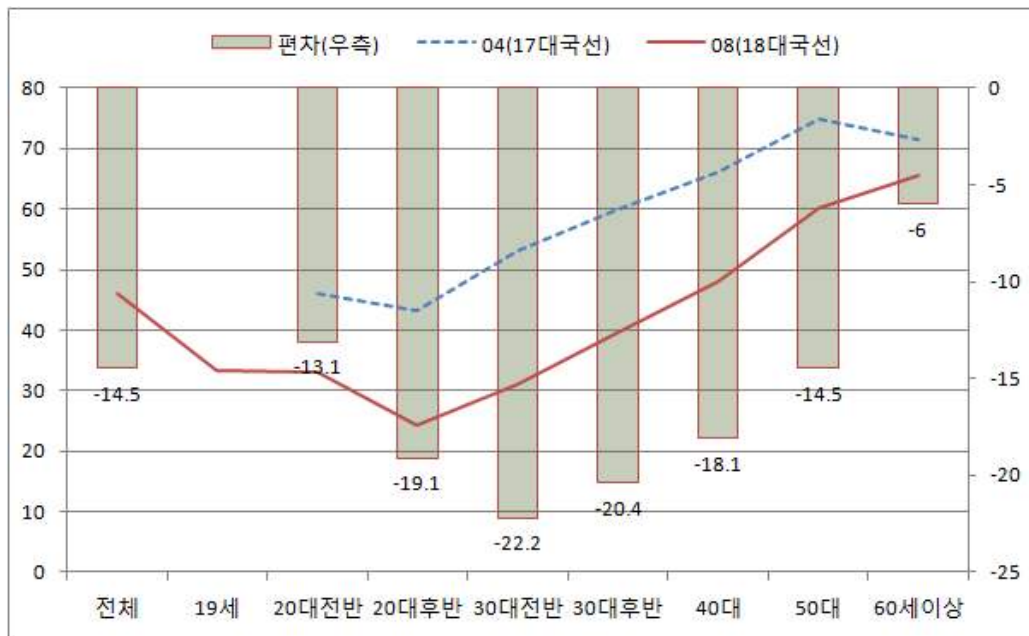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의 세대별 투표율 곡선이 닭았다면, 닭은꼴이 또 하나 있다. 바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다. 사실 앞의 두 그래프와 시간대만 뒤집어 놓으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그래프 모양이 거의 근접하게 나온다. 진보 보수를 떠나 ‘참여’라는 각도만 보아도 역사의 역주행이 된 시기임을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그 이전 선거에 비해 -7.8%, 국회의원 선거는 -14.5%나 떨어진 전체 투표율 수자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그림 3, 그림 4)

그림 3: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7년 선거의 연령별 투표 참여율 비교



2010년 지방선거와 2004년 투표율 상승을 이끌었던 세대가 20~30대였던 것처럼, 2007년과 2008년 기록적인 투표율 하락을 주도했던 것 역시 20~30대였다. 20대 전반 세대가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대체로 군 부재자 투표 영향일 것을 감안하면 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결과는 보수적인 한나라당의 완승이었다.

그림 4: 2004년 국회의원 선거와 2008년 선거의 연령별 투표 참여율 비교



그렇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어떤 모양의 세대별 투표 곡선이 나올 것인가? 역동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큰 한국 정치사회에서 선거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부질없는 짓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10년의 주요 선거 투표 참여 양상을 보건데, 열세를 20~30대가 쥐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상으로 지지정당이나 득표율은 따지지 않고 순전히 투표 참여율만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의 주요 선거의 세대별 시계열 비교를 해보았다. 물론 세대별 투표 참여율 비교만 가지고 너무 많은 시사점을 유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에 따라 선거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을 유도하기에는 더 많은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도 있다.

분명한 것은, 특정 정당의 유 불리를 떠나서 국민의 고른 '참여'가 중요하다는 상식이다. 세대 간 투표율 격차가 시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것이 현실이고, 이는 한국 정치가 세대 편향적인 민의 반영을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한국 정치가 20~30대의 민의와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30대가 단순한 투표행위를 넘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공간'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 세대와 특히 거리가 있는 기존 정치시스템이 이념적, 인적, 조직적으로 바뀔 개연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